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일괄지급 후 세금 환수하면 돼

전문가 “고소득층 추후 세금 걷으면 가능”...미국·독일방식도 고려대상

200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20조 필요...정부 설득과 재원마련 관건

행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 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

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일괄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쓸 한해 소득 변동을 반영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된

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감소가 많이 나타난 사람과 소득 자체가 낮은 사람은 제외하고 고소득자나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나중에 세금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9조원이 아니라 15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년 뒤면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되면 재원문제로 지자체 협조를 고

민할 필요도 없다”며 “영국이 아동수당을 그렇게 했으며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일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지급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소득 하위 약 85%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선을 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이같은 지급방식을 택해 전체 95%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실상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는 셈이다.

독일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생계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

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문제는 재원 문제와 정부의 반대다. 앞서 정부는 당정청이 모여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할 때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000만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보다 적은 규모다.

결국 여당은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70%로 절충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우리나라 2000만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9조원보다 11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너무 완강하게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긴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환수하면 낫습니다”며 “전에도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지급 제기되는 다져내, 한 부모, 경계선 소득 역전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번 재난소득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다. 예견된 논란이다”고 지적했다.

“TV 포장지로 고양이집 만들어 봐요”...삼성전자, 포장재 업사이클링 도입

4월부터 전 세계 출고되는 '라이프스타일 TV'에 에코패키지 적용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에코 패키지로 만든 고양이 집(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일'·'더 세리프'·'더 세로' 포장재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실용성을 물론 환경보호까지 고려한 에코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전 세계에 출고되는 라이프스타일 TV를 대

상으로 골판지로 구성된 포장 박스의 각 면에 도트(Dot)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손쉽게 잘라내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장재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한, 포장 박스 상단에 인쇄된 QR 코드를 통해 반려 동물용 물품,

소형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제작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에코 패키지는 CES 2020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진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더 세리프를 구매한 소비자의 상당수가 리모컨 등 주변 기기 수납을 위해 별도의 가구를 TV 근처에 두고 사용하는데, 이 포장재를 활용하면 리모컨 수납함이나 잡지꽂이 등을 소비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

TV 포장재는 제품을 보호해야 하는 특성상 두꺼운 골판지가 주로 사용되는데, 골판지를 포함한 국내 종이 폐기물은 매일 약 5000톤, 연간으로는 약 200만 톤으로 추산(2017년 환경부 발표 기준)된다.

삼성전자는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에코 패키지를 TV에 적용함으로써 종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영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디진(Dezeen)'과 협업해 '에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이날부터 5월29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공모작 중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을 선별해 9월경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진(dezeen) 웹사이트와 삼성TV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강욱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멀레니얼과 Z세대는 각 브랜드가 얼마나 자신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삼성 TV의 새로운 에코 패키지는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학개미? 응답자 절반 이상, “최근 한달새 주식투자 경험”

조사대상 : 성인남녀 544명 | 조사기간 : 3월 27일 ~ 4월 2일 (7일간)



최근 한 달 사이 “주식 투자했다”

Q. 주식 투자한 이유는?

- 1위. 실수익 기대 (17.2%)
- 2위. 예적금으로는 수익이 없어서 (14.3%)
- 3위. 단순 호기심 (13.7%)
- 4위. 최근 주식매수 열풍에 따라 (12.4%)
- 5위. 주변 지인 추천 (6.2%)
- 6위. 경험을 쌓기 위해 소액투자 (4.0%)

성인 60% “1달 이내 주식투자 경험 有”

절반 가량은 코로나19 테마주에 투자

성인 10명 중 6명이 최근 한 달 동안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절반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테마주에 투자했다.

6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30대 이상 회원 544명을 대상으로 '주식투자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5.7%가 최근 한 달동안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성인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순매수 행렬을 일컫는 신조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순매수, 순매도하며 치고받는 상황

을 지난 1884년 반봉건·반침략을 목표로 일어난 농민들의 사회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말이다.

구체적인 투자 이유(복수응답)으로는 '실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17.2%)가 1위로 꼽혔다. 이어서 △예전부터 주식투자를 이어옴(15.4%) △제로금리 시대에 예·적금으로는 수익이 잘 안 나서(14.3%) △단순 호기심(13.7%) △최근 유명기업 주식매수 열풍에(1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투자종목 중 테마주 중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테마주가 총 46.5%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진단·방역·시약(23.9%) △백신·제약업체(12.3%) △마스크(10.3%) 순이었다.

금호타이어, 대리점 대상

카드 할부 수수료 전액 지원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전문 특화 유통점인 '타이어프로'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할부 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신용카드(KB·하나·현대)결제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대리점이 카드 할부 수수료를 일부 처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2달 동안은 본사에서 카드 할부 수수료를 100% 지원(1회 구매해도 120만원)하게 된

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움츠러든 소비 심리로 인해 어려운 경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 고객인 대리점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교체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유우나 기자

중소 재직 청년, 연간 전세 대출 이자 13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2.0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제도 소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국토부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 등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제도를 담았다.

먼저 만 19~34세 결혼 이전 청년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것을 고려하면 1억원을 대출하면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5월 출시하는 청년전용버팀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는 연 1.8~2.4% 금

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는 대출금 3500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용 다세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의 상품을 통해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1.2~2.1%로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평균 0.95%포인트(p) 저렴하다.

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 산하 KDB산업은행은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항공산업 긴급대출을 지시했음에도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항공업체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산은은 대규모 지원을 미

국을 비롯한 유럽국과 중국에 비해 추가지원책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수십 년간 육성기간간산업인 항공업 고사를 막기 위해 추가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한 상황이다.

조인호 기자

기재부 “항공업 긴급대책 사실무근”

정부가 2조원 규모의 항공업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2조원 항공업 지원책을 언급한 한국경제 보도에 대

해 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조원 규모의 항공업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